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탄소중립 실천 '박차'

전주시, 휴비스·전북옥외광고협회·다시봄과 협약 체결



전주시는 17일 (주)휴비스,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새활용센터, 다시봄과 함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해 탄소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7일 (주)휴비스,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새활용센터, 다시봄과 함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해 탄소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휴비스는 친환경 소재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확보, 소재 공급과 제품 이윤 확보에 힘쓰고,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현장에서 친환경 현수막의 확산과 정착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시민 참여형 교육과 홍보활동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이날 협약에는 전주시 지정계시대를 관리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전주시 산하 8개 출연기관도 동참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산과 공공부문 친환경 전환에 뜻을 함께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달부터 시 산하 전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과 행정용 게시대에 계층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공공기관과 상업용 게시대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전주지역 친환경 원단 제조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지역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탄소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현수막 재활용 기반을 마련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친환경 전환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힘쓰는 한편, 지역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17일 오전 8시, 팔복예술공장 카페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강동오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기부금 관리를 맡은 (재)전주시복지재단 윤방섭 이사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원의 아침밥'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산단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는 아침밥'

전주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 찾아 근로자 격려

전주시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출근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건강한 하루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17일 오전 8시, 팔복예술공장 카페에서(덕진구 구렛날길 46)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강동오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기부금 관리를 맡은 (재)전주시복지재단 윤방섭 이사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원의 아침밥'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0일 첫 운영을 시작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산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새벽부터 식사 준비와 배부에 힘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근로자의

아침 결식을 해소하고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금요일 총 158회에 걸쳐 운영된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식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의도했다. 시는 기업·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지역사회 전반에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근로자들의 든든한 아침을 준비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산단 근로자들이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건강해야 전주 경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2026년 상반기 1인가구 주거생활 안심교육

Chapter 1 1강. 안전한 집 구하기 방법 주거안전 교육(주거안전교육) 2강 주거안전 교육(주거안전교육) 2강 2026.04.09(목) 13:00~17:00	Chapter 2 2강. 장려사업·신생아양육교육 장려사업 교육(장려사업교육) 2강 신생아 양육 교육(신생아양육교육) 2강 2026.04.16(목) 13:00~17:00
Chapter 3 3강. 내 집 관리하기 교육 내 집 관리 교육(내 집 관리 교육) 2강 내 집 관리 교육(내 집 관리 교육) 2강 2026.04.23(목) 13:00~17:00	Chapter 4 4강. 건강 식생활 요령 교육 건강 식생활 교육(건강 식생활 교육) 2강 건강 식생활 교육(건강 식생활 교육) 2강 2026.04.30(목) 13:00~17:00

교육신청방법

신청방법: 전주시 1인 가구 주거생활 안심교육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기간: 2026. 03. 18(수) ~ 03. 27(금)
신청처: 전주시 1인 가구 주거생활 안심교육 담당부서
문의: 전주시 1인 가구 주거생활 안심교육 담당부서
문의전화: 061-281-0162

전주시, 상반기 1인가구 주거생활 안심교육 운영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전주시 실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1인가구 주거생활 안심교육'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주거 금융 정보 안내 등 '안전한 집 구하기' 교육 △정리 수납을 통한 효율적인 주거환경 관리 방법과 공유 사용법, 간단한 전기교체 등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셀프 집수리 교육'이다. 또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생활 관리를 돕기 위해 식생활 영양교육 등도 마련됐다. 교육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www.jhousewell.co.kr) 내 '교육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센터는 각 강좌당 신청수 20명을 모집하며, 강의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와 '함께 상생'

전주시,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 추진

전주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계와 함께 상생하는 유통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대형마트와 중소형 유통업체가 경쟁을 넘어 상호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 변화로 인해 촉발된 지역 동네슈퍼의 경쟁력 약화와 판로 잠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유통생태계 균형 발전을 위한 대형·중소유통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상생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호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정책적 중재자 역할 및 기반 마련에 힘쓰고,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중소유통)이 '우리 동네 수퍼마켓' 공동브랜드 운영 및 판매 점포 발굴 공동 배송 및 특산물 기반 공동기획 PB상품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또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형유통)는 회원사인 대형마트와 SSM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전수하고, 매장 내 공동 브랜드 입점 및 지역 홍보와 공동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성 제고 △'우리동네 수퍼마켓' 공동브랜드를 통한 점포 경쟁력 강화 △지역 내 대·중소유통 상생 기반 판로 확장 등을 이루는 한

편, 특산물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한 PB 상품의 동네 소매점 납품을 통해 고객 유인 및 매출 확대, 사업 다변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시는 각 주체별 원활한 상생 사업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과 및 관리를 위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꾸준히 사업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유통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는 등 전주형 상생유통 플랫폼 2.0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대형·중소형 유통업계가 서로 손잡고 지속가능한 상생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첫발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지방외교 추진체계 구축과 선도적 표준모델 마련에 나섰다. 시는 17일 부시장실에서 '전주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2026~2030년) 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전주시 글로벌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연구 수행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교류 환경 속에서 도시 간 협력이 확대되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주시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며 연구는 오는 6월까지 전주시정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방외교 통합가버넌스 구축 및 글로벌 교류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시 현안 해결 △글로벌 아젠다 다변화에 따른 협력 패키지 △글로벌 브랜드 플랫폼 고도화 등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6월 연구를 완료한 뒤 결과보고회를 거쳐 전주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흥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검무처인 선화정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6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